

# 아베 개각 단행...측근 보강 '극우 폭주'

### 경제·재정·외무·국방 등 핵심관료 19명 중 9명 유임 “고노 담화 역할 끝났다” 발언 하기사 관방부 장관에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7일 단행한 개각의 키워드는 안전운행과 측근 보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깜짝 카드가 없었던 셈이다.

새로 짜인 내각의 각료 19명(아베 제외) 중 자리를 유지하는 9명이 대부분 경제·재정·외무·국방 등 국정운영의 핵심 영역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아마리 아카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후생노동상 등 주요 유임 각료는 각각 정권의 핵심 여陣을 맡고 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맡아온 아마리는 TPP 국회 비준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스가 장관은 자타

가 공인하는 아베 총리의 복심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때까지 경제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주요 장수들을 바꾸지 않은 것이 이번 개각의 테마였다. 이날 부총재·간사장 등 자민당의 수뇌부 5명을 유임시킨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최근 포스트 아베를 노릴 것임을 공식 천명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 담당상이 자리를 지킨 것도 안전 운영의 맥락으로 해석된다. 잠재적 라이벌인 이시바가 아베 내각의 ‘울타리’를 벗어나 당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은 아베 총리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개각은 다수 여론의 반대 속에 집단 자위권 법을 처리하면서 손상된 정권의 안정감을 경제 중심의 방어적 국정운영으로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긴 수



비행 개각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개각의 또 다른 테마는 아베 측근 중용이다. 우선 2차 아베 정권 출범의 발판이 된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때부터 아베 진영의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副) 장관이 신설 ‘1억 총 활약 담당상’ 맡게 됐다.

다.

아베 총리가 최근 표방한 슬로건인 ‘1억 총 활약 사회’를 실행할 각료 자리를 만드는데 대해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자리에 핵심 측근을 기용한 것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자기 사람’을 내각에 더욱 보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각료는 아니지만 ‘고노(河野) 담화(군위안부 관련 담화)의 역할은 끝났다’는 등의 문제발언을 일삼아온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기 관방부(副)장관으로 기용된 것 역시 측근 전진 배치로 볼 수 있다.

여성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참의원과 아나운서 출신인 마루카와 다마오(丸川珠代) 참의원이 각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과 환경상으로 기용된 것은 아베 총리가 강조해온 여성 중용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임될 것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과 함께 여성 각료 수는 기존 3명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IS “연쇄 폭탄테러 우리 소행”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동부 도시 바쿠바, 남부 도시 바스라의 시아파 다수 지역에서 5일(현지시간)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5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 이상이 다쳤다. 사진은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최소 25명이 다친, 바스라 부근 알주바 이르 변화가의 테러 현장. /연합뉴스

## 영국 연구진 “고대 인류 호모 나레디는 두 발로 걷고 도구 사용”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동굴에서 화석이 발굴된 고대 인류 호모 나레디는 두 발로 걸으며 도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들이 밝혔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모 나레디 화석을 발굴한 연구진

들은 보존 상태가 좋은 손과 발 화석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대인과 원시인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국 켄트대학의 고인류학자 트레이시 키벨은 “특히 손목과 엄지손가락의

구조가 현대인이나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며 “이는 강력한 힘으로 무언가를 쥌 수 있고, 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인과 네안데르탈인의 손가락뼈가 곧은 것과 달리 호모 나

레디의 손가락뼈는 많이 굽어 있다.

호모 나레디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이들이 살았던 정확한 시기로, 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호모 나레디 화석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인류 화석 지구 인근의 깊은 동굴에서 발견됐으며, 동굴의 이름을 따 호모 나레디로 명명됐다. /연합뉴스

## 아프간 미군 사령관 “실수로 병원 공습”

### 국경없는 의사회·유엔, 엄정 조사 촉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캠벨 장군은 6일(현지시간) 미군의 아프간 쿤두즈 ‘국경없는 의사회’(MSF) 병원 오복 사건과 관련, “실수로 병원을 공습했다”고 자인했다.

캠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아프간군의 요청에 따라 공습 지원을 했지만, 공습 자체는 명확히 미군의 지휘체계 아래에 미국이 결정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경위를 떠나 공습 자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아프간군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해 공습한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책임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캠벨 사령관은 “우리는 결코 보호시설인 병원을 의도적으로 공습 목표물로 삼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MSF 측과 유엔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이번 사건을 ‘전쟁범죄’로까지 규정하며 엄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캠벨 사령관은 미군 특수부대가 공격을 받아 공습했다는 당초의 주장과 관련 해선 “미군 특수부대가 공습 직전 병원 근처 지역에서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 자원, 지원업무를 수행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난민 천국’ 독일에 반이민 정서 꿈틀

### 이슬람 반대 단체 집회 주도

독일에서 난민 급증 여파로 반이민 정서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 주도의 월요집회 참가자가 증가하고, 난민 반대 여론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맞물려 대연정 정부 내에서도 난민의 ‘무제한 포용’에서 ‘제한적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5일(현지시간) 페기다의 거점 도시인 드레스덴 월요집회에는 8000 명이 모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은 페기다 창설을 이끈 루츠 바흐만 등이 앞으로 예상되는 난민 수는 150만 명이나 200만 명에서 그칠 일이 아니며 이들을 독일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크게 환호했다.

바흐만은 과거에 난민을 쓰레기에 비유하고 아돌프 히틀러의 콧수염을 단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집회에는 역설적이게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나치 제복을 입힌 깃발도 등장했다. 독일 주류사회는 이들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을 오히려 신나치 세력으로 분류하곤 한다.

독일 당국은 이와 관련, 최근까지 적어도 난민 유입 과정에서 IS 요원이 섞여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때 2만5000명이 집회에 가세하며 영향력을 키웠던 페기다는 그동안 주류 사회의 비판 여론에 압도당하고 바흐만 등 지도부의 도덕적 열세에도 타격받아 크게 기세가 꺾였지만, 지난주 1만 명을 모으면서 다시 긴장감을 높이는 형국이 됐다. /연합뉴스

## 중 부유층, 유럽 고성 사재기 열풍

중국 부유층이 최근 투자 목적으로 유럽지역의 고성을 잇따라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치아나모닝포스트는 7일 영국의 고급 부동산 중개업체 바사포드앤드워드 윌드와이드가 율동어서만 중국인 19명에게 유럽지역의 고성을 팔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의 고성이 중국인에게 매각된 사례가 전혀 없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중국인들의 투자 행보여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고급 숙박시설 중개업체 로런 버거 콜렉션의 컨설턴트인 알렉스 체한스키 역시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의 고성과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려는 중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체한스키 컨설턴트는 “중국 투자자들은 독특한 것을 원한다”며 유럽의 고성은 독특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판매 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이처럼 고성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저금리 환경, 중국 중시 둔화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체한스키는 설명했다.

유럽 고성 구매를 추진 중인 중국 무역회사의 한 회장은 “중국인들은 프랑스 등 유럽국가 여행을 좋아한다”며 “고성을 고객을 위한 개인 클럽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m2(668평)  
건물 4218m2(1276평)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 파격적인 임대조건(보증금 및 차임)

문의 010-7570-7525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